

관광객 감소... 중·소형 관광호텔 경영 악화

7월말 현재 830만 5635명... 전년 동기 比 3.7% 감소
제주시내 중급 호텔 3곳 폐업·1곳은 매각 등 추진중
분양형호텔 덩펍·타운하우스 영업 등으로 경영난 가중

올들어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도내 관광호텔들이 폐업하거나 업종 변경을 검토하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같은 상태에서 최근 실시한 국내여행자 관심도 조사에서 강원도에 1위 자리를 내주는 일까지 벌어져 제주관광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830만 5635명으로 지난해 862만 1651명에 견줘 3.7% 감소했다.

전체 관광객중 내국인은 770만 2924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772만 4754명보다 0.3% 줄었다. 외국인 관광객도 60만 2711명으로 전년동기 89만 6897명에 비해 32.8% 감소했다.

이같은 관광객 감소는 도내 관광호텔들의 경영난으로 직결된다. 제주시 연동·노형동에 위치한 중급 관광호텔 3개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올해 폐업했고, 인근에 있는 다른 관광호텔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일부 특급호텔인 경우 올해 객실 가동율은 전년에 비해 약 25% 증가했지만 객실 가동률 증가에 따른 매출 신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여행사 패키지 상품인 경우 관광호텔 수준의 요금(6만~7만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A호텔 관계자는 “올해 투숙객이 줄어들면서 직원 인건비 지출도 힘든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특급호텔에서 우리 관광호텔 수준의 요금을 받고 있어 더욱 경영이 어려워 지고 있다”며 “사람이 안오는데 질적관광만 떠들지

말고 사람들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대중관광 활성화로 가면서 일부는 질적·고급관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역사월드 호텔 개원, 일부 타운하우스의 무허가 숙박과 분양형 호텔의 덩펍도 도내 관광호텔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호텔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이후 단체 관광객을 겨냥한 가격 덩펍이 이뤄지고 타운하우스의 무허가 숙박으로 인해 관광호텔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신화역사월드나 신라와 롯데 등 대형 호텔들은 자본력과 기획·홍보 능력이 있어 살아나가고 있지만 도내 중소형 호텔들은 영업이 안돼 문을 닫거나 업종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 숙박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조절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도내 관광호텔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제주가 국

내여행자 관심도에서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여행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자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 여행 관심도는 48%로 강원도(50%)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감소하고 제주에 대한 여행객들의 관심도가 줄어들 경우 제주지역 관광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한 여행사 관계자는 “외국여행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 붓물을 이루면서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반해 제주에 대한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또 저렴한 항공편만 있으면 100만원으로 동남아에서 3박4일 편안하게 지내다가 올 수 있다”면서 “제주의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한다. 제주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세계 한민족여성리더들 제주4·3 되짚기

31~2일 제주서 교류협력 행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 15개 지역 16명의 한인여성 지역담당관을 제주로 초청해 코윈(KOWIN:한국 여성 국제 네트워크)과 함께하는 세계한민족여성 교류협력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류협력행사는 지난달 31일~2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4·3 70주년을 맞아 제주4·3 전문가 특강과 4·3 평화공원 방문 등 4·3의 흔적을 되짚어 본다. 또한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교류협력행사 개최를 통해 제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내 여성 리더들의 국제 교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여성기업인으로 구성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회원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제주 여성경제인들과 해외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담당관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해외 지역담당관들이 도내 여성 기업을 찾아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채해원기자

삼도2동·모슬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정부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서 의결
2022년까지 총 363억4000만원 투입 예정

제주도내 제주시 삼도2동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지역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이 선정됐다.

제주지역은 제주시 삼도2동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주거지원형 사업과 서귀포시 대정읍 ‘캔(CAN) 팩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일반근린형 사업이 선정됐다.

다시돌아와 살고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사업은 원도심 대표 지역으로서 인구감소·고령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일자리창출, 공공임대주택·패시브하우스·녹색건축물 공급, 문화예술인·청년기업가 활동공간 제공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캔(CAN) 팩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사업은 지역특화산업 종사자수 증가, 청년주택공급, 지역거점시설 방문자수 및 관광객 수 증가를 목표로 ▷지방·소도시 중심도로변 재생 ▷재래시장 활용 원도심 재생 ▷소호형 주거를 러스터 ▷역사문화자원 활용 재생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두 사업의 사업비는 총 363억4000만원 규모다.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사업은 국비 75억, 지방비 66억7000만원이 매칭돼 총 141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캔 팩토리 다시 사는 모슬포 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까지 기타사업으로 포함돼 사업비 규모는 221억7000만원(국비 75억, 지방비 66억7000만원, 기타사업 80억)에 달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지방비 매칭 규모를 국비의 40%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일반근린형사업과 주거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140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지방매칭비율을 높였다”면서 “상세사업은 추후 타당성 검토 과정 등을 거치며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해원기자

한풀 꺾인 무더위...

낮 기온 30℃ 밀돌아

3~4일 21호 태풍 ‘제비’ 영향

이번 주에는 낮 기온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4일부터 낮 최고기온은 28~29℃를 오갈 것으로 보이며 오는 7일 비가 내린 후에는 낮 최고기온이 26~27℃로 더욱 선선히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3℃, 최고 26~29℃)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5~10mm)과 비슷하겠다.

3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흐리겠으나 지속적인 남풍류의 유입으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산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4일은 오전 한때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부터 차차 그치겠으며 오후에는 구름이 많고 흐릴 것으로 보인다. 3일부터 4일 오전



시작된 벌초행렬 창문을 넘나드는 바람에 찬기운이 물어낸다.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풀숙에선 가을이 영글기 시작했다. 무더위가 한 풀 꺾인 2일 한 가족이 제주시공원골설묘지에 마련된 조상의 묘소를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벌초를 하고 있다.

까지의 예상강수량은 5~30mm다.

기상청은 당분간 육상과 해상에는 짙은 안개나 박무(얇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속적인 동풍에 의해 제주도 동쪽해상과 남해서 부면 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고 있

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일까지는 제주도 남쪽면바다와 제주도 해안가에는 너울에 의해 물결도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전 해상과 남해서부면바다에서 1.0~3.0m로 일겠다.

한편 2일 오후 3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780km부근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 제21호 태풍 ‘제비(JEBI)’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3~4일 일부 지역 강수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손정경기자 jungkso@ihalla.com



명품 브랜드---CBD가구 제주 플래그십 스토어의 그랜드 오픈 이벤트기간 09월03일~09월15일.

CBD가구는 이탈리아의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장인의 디자인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추구하여 2000년부터 독창적인 디자인과 최고 기술, 최고 품질,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외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안락함, 다이아몬드 등급의 집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CBD가구는 침대, 소파, 매트리스, 아동 가구, 수납 가구, 원목 가구등의 명품관입니다.

CBD가구는 전세계 3000개 이상의 가구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오픈팅 특별 이벤트: 제주도 전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모델하우스 모집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신청하신 고객님의 가구 폴세트를 파격 세일가격으로 드리며, 그외에 매트리스 1+1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흥동 271
TEL: 064-733-2366
E-mail: cathyxu@naver.com
Facebook: CBD Furniture Jeju Island
Kakaotalk: ycj150371659
Website: www.yufengcbd.com

풀 원목 침대 프레임을 보신적 있습니까?

호흡을 할수 있는 매트리스에 누워 보셨습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소파에 앉아 보셨습니까?

이제부터 CBD제주지점에 오셔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번의 경험이 삶의 질을 바꿔드립니다.

CBD가구에서 다이아몬드 등급의 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